

‘적자 누적’ 한림 감귤가공2공장 임대 결정

“제주서 위케이션 하면 항공료도 지원” 도, 1인당 30만원 한도... 종전엔 숙박·여가비만 지급

물량 줄고 지하수 질산성질소 나와 3년째 가동중단
도개발공사 지난달 말 이사회 열고 대부사업안 의결
공익적 기능 약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 여부 등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난 2021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감귤가공 제2공장을 임대해주시기로 결정해 도민 여론이 주목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감귤2공장 대부(임대)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주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감귤가공공장은 2001년 1월 준공된 한남 제1공장과 2003년 12월 한림읍 율림리 제2공장 등 모두 2곳이다. 제2가공장은 부지면적 2만4000여㎡에 농축·착즙설비와 감귤박 저장시설, 냉동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림 제2가공장은 가공용 감귤 감소로 연간 가동기간이 1개월에 그치고 질산성 질소 기준 2021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19년 6690t에 이르던 감귤 수매·가공처리량은 2021년 기준 760t으로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소비트렌드 변화로 감귤 농축액 판매량은 2018년 2728t에서 2022년 1803t으로 감소한 상태다. 이로 인한 제주개발공사 감귤사업 적자는 2018년 56억원에서 2022년 94억원

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제2가공장에 대한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2023년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맡겨 ‘감귤2공장 가치 재창출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기초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사업별 가치 재창출 방안으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감귤 비농축주스 생산 ▷감귤 ABC 주스 생산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추출 공장으로 전환 운영 ▷제주산 농산물 메디푸드 등 건강식품 생산 공장 전환 ▷제주산 감귤식품 종합타운 운영 등이 제시됐다.

운영주체 조정을 통한 가치 재창출 방안으로 민간 자본 투자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제2공장을 임대하

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대목적 사업으로는 감귤가공 사업이나 제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감귤 가공 부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사업, 농가재 생산 및 유통·수출 사업, 도내 생산 신선 농산물 가공 사업 등이 제안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이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직영보다는 임대를 통한 민영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역팀도 공익성 위축과 인차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그리고 감귤 시장가격 저지 등 공익적 기능 약화 등의 우려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도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앞으로 제주에서 위케이션(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경험하는 새로운 근무제도)을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은 항공료도 지원받는다. 또 제주에서 위케이션을 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할 경우 제주도가 지자체 최초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등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제주위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3월 이상 도내 위케이션 시설을 이용한 도의 기업과 재직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숙박비와 여가비, 항공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민간형 개별 바우처’를 발급

한다. 이전까지는 숙박비와 여가비용도로만 지원했지만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항공비도 실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형 개별 바우처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4일까지다.

제주도는 도내 민간 위케이션 시설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기업을 유치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바우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령 모 위케이션 시설이 출판업계와 소규모 포럼을 기획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면 포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한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도, 올해도 399곳 전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도 도내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안전공제 보험료 전액 지원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 어린이집은 399곳(제원 아동 1만 7321명)에 이른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종이 확대된 9종의 안전공제회 상품이 가입됐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 증후군 특약 ▷놀이 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 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보육 동반자 ▷화재(집기/신규) ▷화재 위로금(신규) 등이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지난해에는 제주 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279건에 6200만원의 안전공제보험금이 지급됐다.

전선희기자



보라빛 여성의 날 “성평등한 제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제주시 산지천 복수구광장에서 펼친 ‘제117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콘셉트로 ‘제주여성의 힘과 연대를, 성평등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공연, 플래시몹, 거리 행진 등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역사 속 여성의 가치를 되새겼다. 제주도 제공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비 모집 경쟁률 3대 1

도, 200명에 최대 50만원

제주지역 전기자전거 구매자 200명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개모집에 600명 가까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참여한 응모자를 상대로 추첨을 거쳐 당첨자 2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95명이 신청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전자추첨을 실시해 당첨자

200명과 예비대상자 200명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선정 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당첨자들은 도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구입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상민기자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개소... “건강한 야당 되겠다”

조국혁신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8일 개소식을 열고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제주 시내 연삼로 윤경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 제주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제주자치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현은정 도당 부위원장, 김예숙 제주도 정부부지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 사진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정국을 신속히 종식하기 위해 제주지역 당원들의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고 조국혁신당의 단기와 중장기 목표 등을 제시했다.

김상균 도당위원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건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해 3월 22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9일 창당대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12일 선관위에 등록했다.

위영석기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서귀포시는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려니숲길 입구와 솔솔로 전망대 등 6개 지역 11대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이달 17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

고,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이다. ▷1인 1지역 ▷1세대 1인 ▷1차량 1개 지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우선순위 1 순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으로 청년(15~29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다. 문의 760-2421. 문미숙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새마을금고

윤재순

(서홍동)

호근새마을금고

고학인

(서홍동)

하원새마을금고

강의근

(하원동)

동홍새마을금고

오철봉

(동홍동)

의귀새마을금고

김익준

(남원읍)

예래동새마을금고

임수진

(상예동)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산림조합 조합장 오형욱 외 임직원 일동